

자발적 단식 존엄사로서 VSED

VSED as Voluntary fasting up to death with dignity

양영순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자살을 뿐 아니라 고독사의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2위를 다퉈지 오래다. 게다가 한국인들의 약 80%는 고가의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고독한 의료사를 맞이하고 있다. 연명치료 거부 권리는 있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아직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자발적 안락사의 한 방법으로서 의사조력사와 비견되는 죽음의 방법이 있다. 외부의 약물 투여 및 처방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의지적으로 단식을 유지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자발적 단식사(Voluntar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 VSED)이다. VSED는 현재 서구 곳곳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VSED가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종교 전통 속에서 시행되어 왔다. 살레카나(단식사) 혹은 사마디마라나(삼매사)라는 임종에 이르는 단식은 고대부터 현대 인도의 자이나교도들까지 연간 2-300명 정도가 실천하며, 이를 자이나교의 VSED라고도 한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인도 사회는 이를 자살 및 자살방조죄로 판결했다가, 자이나교도들의 적극적인 시위와 권리주장을 통해 이슈화되었고, 현재는 그 관행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해외 거주하는 자이나 신자들이 안락사를 대신하는 존엄사로서 살레카나를 실행하는 사례들도 눈에 띈다.

살레카나처럼 VSED 역시 조력자(살)의 한 형태가 아닌지 자살 및 교사죄 논란이 있지만, 서구에서는 이는 자살이 아니며, 존엄사를 위한 자기 결정권이 우선한다고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 VSED는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사보다는 의료시 임종지원(MAID)이나 연명치료 중단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비교해야 한다. VSED는 무엇보다 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의지에 의해 행사되는 죽음이므로 민감한 안락사 문제에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양영순(YANG, Youngsun)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의 선임연구원이다. 인도 종교인 자이나교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자이나교, 요가 명상론, 인도 의학, 죽음의 수행 등 실천론에 주목하여 연구해 왔다. 특히 죽음이라는 숙제에 대해 인도 종교와 철학이 어떠한 답을 모색해 왔는지 탐색하여 생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Date & Time: nov 19, 2024.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